

신대체 요법을 시행중인 말기 신부전 환자의 기능성 위장장애에 대한 연구

서울위생병원 내과¹, 대전을지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²,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³,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⁴,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⁵,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⁶, 엄재호내과의원⁷

최소연¹ · 김민옥² · 최현주² · 권순길³ · 김현정⁴ · 백현정⁵ · 장은희⁶ · 윤수인⁷

Functional gastrointestinal disorders in End stage renal disease patient undergoing treatment by Hemodialysis and Peritoneal dialysis

Choi So Yeon¹, Min-Ok Kim², Hyun Ju Choi², Soon Kil Kwon³, Hyun Jung Kim⁴
Hyunjeong Baek⁵, Eun Hee Jang⁶ and Soo In Yun⁷

¹Seoul Adventist Hospital, ²Daejeon Eulji University Hospital, ³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⁴Kyungsang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⁵Kangwo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⁶Cheju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⁷Uhm Jae Ho Clinic

배 경 : 말기 신부전 환자들에서 변비를 포함한 위장 증상은 일반 인구에 비하여 훨씬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원인으로 는 불량한 영양상태, 식이 섭취의 제한, 장기간의 다제 약물 투여, 비활동성, 투석에 따른 생활 양상의 변화, 당뇨, 심혈관계 질환 등이 있다. 최근에는 식이 행태의 변화, 신약 등의 부가적인 사용과 동반 장애나 정신 질환등의 빈도 증가로 기능성 위장 장애에 속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기능성 변비의 유병율도 변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방 법 :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전국의 대학병원 5곳과 인공신장실 1곳에서 유지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435명과 복막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16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다기관 공동 연구를 시행하였다. 50세가 넘는 환자중에서 5년 이내에 대장내시경을 시행받지 않은 환자는 기질성 질환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연구에서 제외하였고 Rome III criteria를 바탕으로 한 설문조사에 서면 동의를 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기능성 변비의 유병율을 조사하였다. 혈액투석 환자 90명, 복막투석 환자 44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결 과 :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46세 (19- 72세) 였으며, 평균 투석연한은 47개월이었고, 남녀의 비율은 70: 72 이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빈도는 혈액투석 환자에서 15% (14/90) 복막투석 환자에서 18% (8/44)였고, 기능성 변비의 빈도는 혈액투석 환자에서 33% (30/90), 복막투석 환자에서 36% (16/44)이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기능성 변비는 나이, 성별, 체질량 지수, 투석 연한 등의 차이에 의해 빈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군보다 Kartz score (Basic activities of daily living scale)가 유의하게 낮아 일상 생활의 독립적 수행능력이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기능성 변비 환자군의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군보다 BDI (Beck Depression Index)가 유의하게 높았고 항우울제 복용 빈도가 유의하게 높아 우울 정도가 심함을 알 수 있었다.

결 론 : 유지 투석치료를 받는 말기 신부전환자에서 Rome III criteria를 바탕으로 한 기능성 위장장애와 기능성 변비의 빈도는 각각 15- 18%, 33- 36% 정도로 향후 정상 대조군과의 비교 및 특징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Key Words : 기능성 위장장애, 말기 신부전, 투석

Functional GI disorder, ESRD, Rome III criteria